



2010년은 건강보험 통합 10주년을 맞이하는 동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출범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그 동안 우리원은 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용을 적정화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내·외부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 제일의 의료심사평가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7년 「HIRA정책동향」창간호에서는 우리원이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의견 공유의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2010년은 그 동안 시행되었던 가감지급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동시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로 정착하는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호의 「정책현안」에서는 가감지급 본 사업의 도입을 앞두고 시범사업의 효과뿐만 아니라 그 동안 제기된 문제점, 향후 적용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시 한번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그 동안 우리원에서는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 국민에게는 의료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요양기관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여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 국회 등 각계에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가감지급을 실시해야한다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주요 외국에서도 ‘성과에 따른 차등지급(Pay for performance, P4P)’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확대함에 따라 우리원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가감지급모형 개발 등을 위해 심포지엄, 공청회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2007년 7월부터 금년도까지 3년 6개월에 걸쳐 가감지급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가감지급 시범사업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2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2008년도에는 감액기준선을 공표하고 2009년에는 가산지급을 실시하였으며, 2010년에는 가감지급을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초기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결과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평가등급 하위그룹의 질 향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질 향상에 기인한 요양기관 간 질적 변이가 감소하는 등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하여는 경제적인 보상을 연계하고 의료소비자에게는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가감지급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10년 진료분부터는 가감지급대상기관을 종합병원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가감지급 대상영역을 확대적용 시에는 우리 실정에 맞는 가감지급모형을 개발한 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가감지급함으로써 의료공급자와 의료소비자 모두 win-win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가감지급제도는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건강증진은 물론 국내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여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